

고물가에 유통업 체감경기 ‘급랭’

자산가치 하락에 소비심리 꺾여
경기전망지수 전분기 대비 15p ↓
“가격·상품 경쟁력 확보해야”

코로나19의 엔데믹(풍도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전환과 경제활동 재개로 살아남 조짐을 보였던 유통업 체감 경기가 다시 급속히 얼어붙었다. 고물가·고금리에다 자산가치가 하락하면서 소비심리가 꺾인 탓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매유통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 분기 대비 15포인트(p) 하락한 84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런 하락 폭은 2010년 이래 코로나19 충격으로 22p나 급락했던 2020년 2분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것이다. 대한상의는 “가파른 물가 및 금리 상승과 자산가치 하락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소비 여력이 축소된데다 하반기에도 현 상황이 이어지

거나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RBSI가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직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RBSI는 지난해 2분기 103에서 3분기 106으로 상승한 뒤 4분기 99, 올해 1분기 96으로 내리 하락했으나 올해 2분기에는 99로 반등했었다. 업체별로 보면 편의점(103)이 유일하게 기준치(100)를 웃돌았다. 이는 외식물가가 높아지면서 가성비 좋은 도시락이나 간편 식품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백화점(97)은 전반적인 체감경기 하락에도 선방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득수준이 높은 소비계층이 상대적으로 물가상승에 덜 민감해 ‘럭셔리 소비’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반면 대형마트(97→86)와 슈퍼마켓(99→51) 등은 물가상승의 영향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형마트의 경우 높은 생필품 가격에 부담이

커진 중산층과 서민층이 장보기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결과로 보이며, 슈퍼마켓은 대형마트와 편의점 사이에 끼여 고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수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온라인쇼핑(96→88) 역시 코로나19의 엔데믹에 따른 대면소비 증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두 분기 연속으로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유통업체들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계획으로 가격 할인 등 프로모션 강화(27.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온라인 강화(22.8%), 비용 절감(20.2%), 점포 리뉴얼(9.2%) 등을 차례로 들었다. 최근의 경영 애로 요인으로는 물가상승(34.2%), 소비위축(27.0%), 인건비·금융·물류비를 비롯한 비용상승(18.8%) 등을 차례로 지목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금리와 물가가 뛰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돼 당분간 소비심리 위축이 불가피하다”면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기 변동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가격·상품 경쟁력 확보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농어촌공사, 지하해수 개발 적지조사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한파피해
육상양식·종자생산 어가 지원

한국농어촌공사는 매년 계절마다 반복되는 고수온과 한파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육상양식장과 종자생산 어가를 돕기 위해 15개 지구에서 지하해수 개발 적지조사를 실시한다. 주로 연안 해수를 양식장 용수로 이용하는 육상양식장과 종자생산 어가는 계절별 해수 온도 변화 폭이 큼에 따라 일정 온도 유지를 위한 에너지 비용 부담이 높아 어려움을 겪어 왔다. 올해도 때 이른 무더위로 수온이 평년보다 1.7℃ 높아지면서 예년보다 열을 빠른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에 공사는 반복되는 수온차로 인한 육상양식장과 종자생산 어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함께 지하해수 이용방안을 제시해 어가 경영 안정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지하해수는 일정한 온도(14~18℃)를 유지하고 있어 양식장 용수로 사용할 경우 용수를 데우거나 냉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조나 해양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공사는 2010년부터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양식장 용수관리사업’을 시행, 육상양식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하해수 탐사와 시추를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반복되는 수온차로 어려움을 겪는 육상양식 어가가 지하해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해수 부존 확인을 위한 시추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통해 개발타당성을 확인하고 이용방안을 제시해 오고 있다. 공사는 지금까지 148개 지구 716공에 대한 시추조사를 실시해 398공의 이용방안을 제시했으며 올해도 추가로 15개 지구에서 46공을 조사할 계획이다.

노경환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지질처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과 저수온이 반복되면서 육상양식 어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육상양식장에서 지하해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량 취수지역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신보-광주은행, 보증부대출 금리상한 협약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정섭)은 18일 광주은행과 보증부대출 금리상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일상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체결된 이번 업무협약은 광주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규 보증부대출 취급시 금리상한을 책정, 가산금리를 제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진행됐다. 금리상한 적용기간은 기한연장을 포함, 신규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5년 간이며, 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시 전액보증은 6개월 +

2.5% 이내, 부분보증의 경우는 6개월+3.0% 이내의 금리상한을 준수해 대출 취급한다. 이와 더불어 중복 수해방지를 위해 정부 또는 지자체 정책자금 및 특례보증, 근보증 및 기보증 회수보증, 금융기관 출연분 협약보증은 제외해 운용한다. 광주신보 변정섭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안정적인 저금리 지원의 토대를 마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광주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금호타이어, 이마트24서 타이어 렌탈 판매

31일까지 런칭 프로모션

금호타이어가 렌탈 플랫폼 기업 비에스온과 함께 운영 중인 타이어 방문장착 서비스 ‘도로로로서비스 렌탈’을 이달부터 이마트24 편의점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도로로로서비스 렌탈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이마트24 편의점을 방문해 연락처만 남기면 걸려온 해피콜을 통해 렌탈 계약을 체결, 장착 대리점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소비자들은 차중에 맞는 타이어를 선택하고 장착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절약형 렌탈 선택시 타이어 렌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기본형 서비스 선택시 무료로 얼라인먼트와 위치교환

서비스, 타이어 파손 시 1+1으로 교체해주는 타이어보상 보험 프로그램(타이어 추가 교체 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방문 픽업 서비스를 추가할 경우 전문 기사가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방문해 타이어 교체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타이어프로 홈페이지 내 ‘도로로로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와 비에스온은 이번 이마트24와의 협업을 기념한 런칭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행사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이 기간 내 이마트24를 통해 도로로로서비스 렌탈을 이용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렌탈 등록비 면제, 3개월 렌탈료 면제, 선택 사은품 수령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지현 기자

금호건설, 베트남 대교 건설공사 수주

총 공사비 1천억원 규모

금호건설은베트남 호찌민 제3순환도로의 일부 구간인 ‘년짜’ (Nhon Trach) 대교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 금호건설이 단독으로 시공하는 이 공사는 호찌민시 동북부 ‘면짜’ 지역과 남동부 동나이성 ‘년짜’ 공단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 사업의 핵심 구간이다. 호찌민시와 인접한 년짜공단은 인근 공단 중 가장 큰 규모다. 현재 대한민국 기업 200여개의

직접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국내 기업들에는 친숙한 지역이라고 금호건설은 소개했다. 이번 사업의 총 공사금액은 1천억원 규모다. 이번 사업은 한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재원을 조달하고, 베트남 교통부(MOT) 산하 미투안(My Thuan) 사업관리단(PMU)이 발주한 공사다. 교량의 전체 길이는 년짜대교를 포함해 2.6km이며 폭은 19.75~20.5m에 달하는 왕복 4차로다. 공사 기간은 이달 착공을 시작으로 약 35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내년 초부터 기존 노선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버스로 바뀌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12월 공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새 시행령·시행규칙은 내년 1월 19일부터 시외버스를 제외한 노선버스를 대·폐차

할 때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했다.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는 경제성 등을 이유로 저상버스 도입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그 대신 대·폐차 시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리프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광역급행형 좌석버스도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감안해 도입 의무 적용 시점을 2027년 1월부터로 유예했다. 도입 의무화 대상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외를 인정받는 경우는 저상버스 도입 의무가 면제된다. /연합뉴스

오리지날 두유 - 베지밀

베지밀 전속모델
강석우 나연진 부부

시니어의 여유는 건강에서!

베지밀 5060시니어두유로 건강을 챙기세요

★신제품 출시★

시니어에 필요한 영양을 한팩에- 하루세끼 건강메뉴

- 뼈 건강 위한 겐공, 고칼슘, 비타민D
- 건강유지 보호막 베타글루칸 이르기린
- 필수 단백질 효율 강화 메티오닌
- 항산화 영양성분 아연, 셀레늄(Se)
- 두뇌구성 물질 오메가3
- 건강한 당 설계 결정과당, 올리고당

1주 무료 체험 | 전국 어디서나 1577-0426 소믈리에센터 www.edaymail.com | 문의 | 고객센터 1580-930-8888, (02)553-8888 www.vegemil.co.kr
● 서울-경기: 동북영양연구소 (03)5562-6907 ● 북부영양연구소 (03)5969-3282 ● 남부영양연구소 (03)2634-6535 ● 관서영양연구소 (03)2634-2305 ● 안성영양연구소 (03)2634-8801 ● 강원영양연구소 (03)2632-8801 ● 전북영양연구소 (03)3224-5731 ● 전남영양연구소 (03)2948-5001 ● 경북영양연구소 (03)3559-3441 ● 경남영양연구소 (03)5231-6508 ● 광주영양연구소 (05)4751-6331 ● 부산영양연구소 (05)1004-6501